







## 작가의 말

남편이 후다닥 준비하고 차에 시동을 켜는 순간 가벼운 떨림과 기대를 품고 우리의 여행은 시작됩니다.  
특별한 목적지가 없어도 함께여서 즐겁고 행복한 여행을 하는 모습을 보며 여러분들도 우리의 인생이 특별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셨으면 합니다.



## 우리 다음엔 어디로 갈까? (우리 이제 그림책 작가 3)

발행일 2025. 11.  
발행처 인천광역시교육청신트리도서관  
기획 인천광역시교육청신트리도서관 독서문화과  
글·그림 박진희  
지도작가 고진이

### [비매품]

\* 이 책은 2025년 인천광역시교육청신트리도서관의 2025년 책동네산책 프로젝트 2기의 결과물로 민들레작은도서관 「그림책 창작동아리 우리 곧, 작가」 활동으로 만든 그림책입니다.

\*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 및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 이 책은 전자책으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ISBN 979-11-94496-74-8(PDF 전자책)

ISBN 979-11-94496-71-7(세트)



전자책 읽기



우리 이제 그림책 작가 3

# 우리 다음엔 어디 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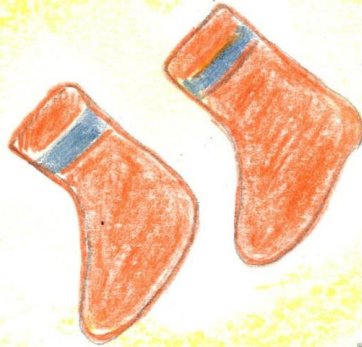
글·그림



박진희



인천광역시교육청신트리도서관



남편은 매번 어디가는지 정하지도 않고  
자꾸 어디를 가자고 하는 걸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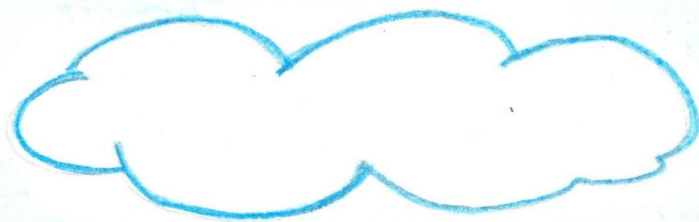




"우리 어디 갈까?"

"글썩..."





"오늘은 동쪽으로 가보자."

"좋아!"



동쪽으로 신나게 달려 도착한 충청도 단양  
우리 절벽과 강이 어우러진 풍경을 바라보며  
잔도길을 아슬아슬하게 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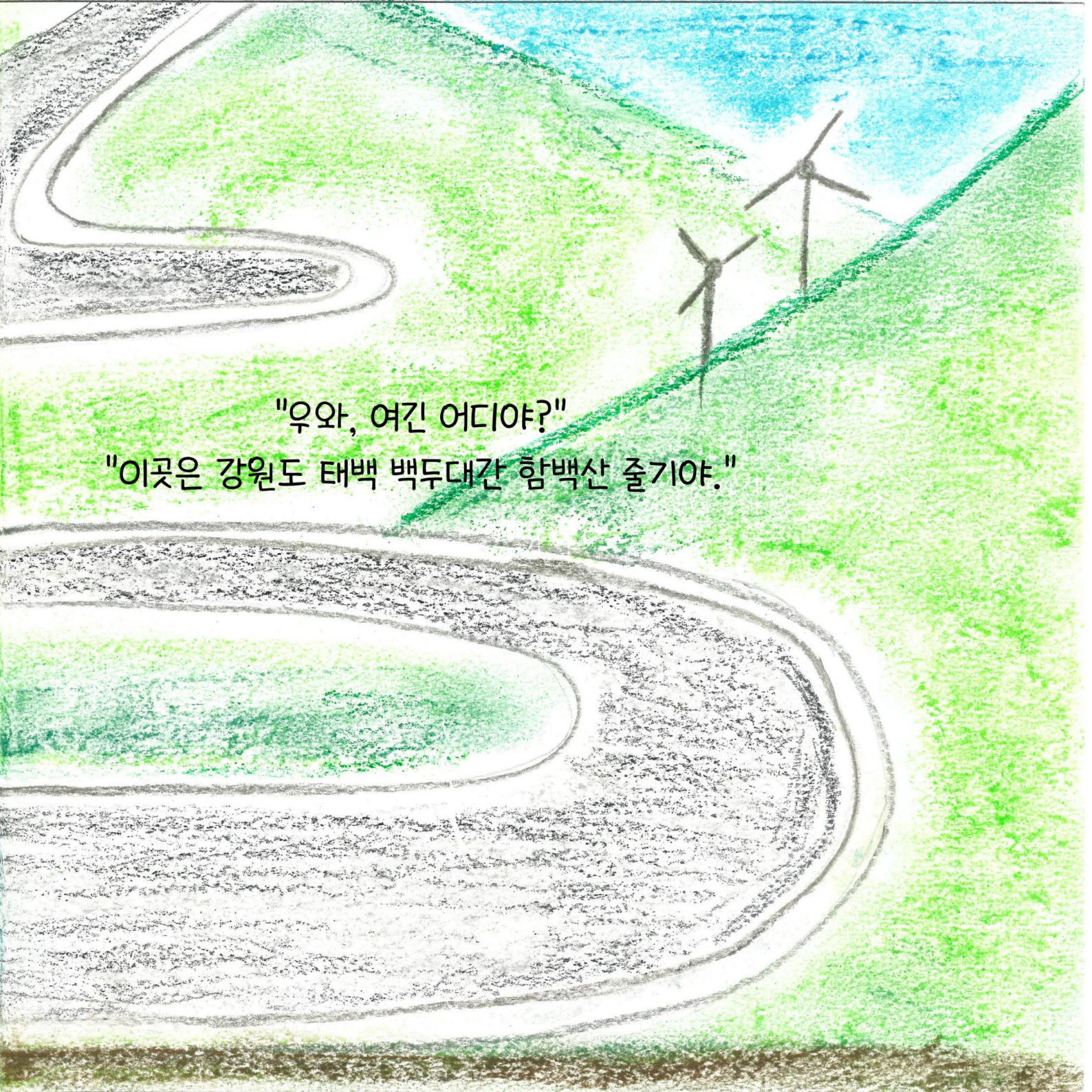






"붕~ 조금 더 달려볼까?"

구불구불 꺾이지른 듯 아찔한 길을 달려  
도착한 곳이다.



"우와, 여긴 어디야?"

"이곳은 강원도 태백 백두대간 함백산 줄기야."



"이번엔 서쪽으로 가보자."

"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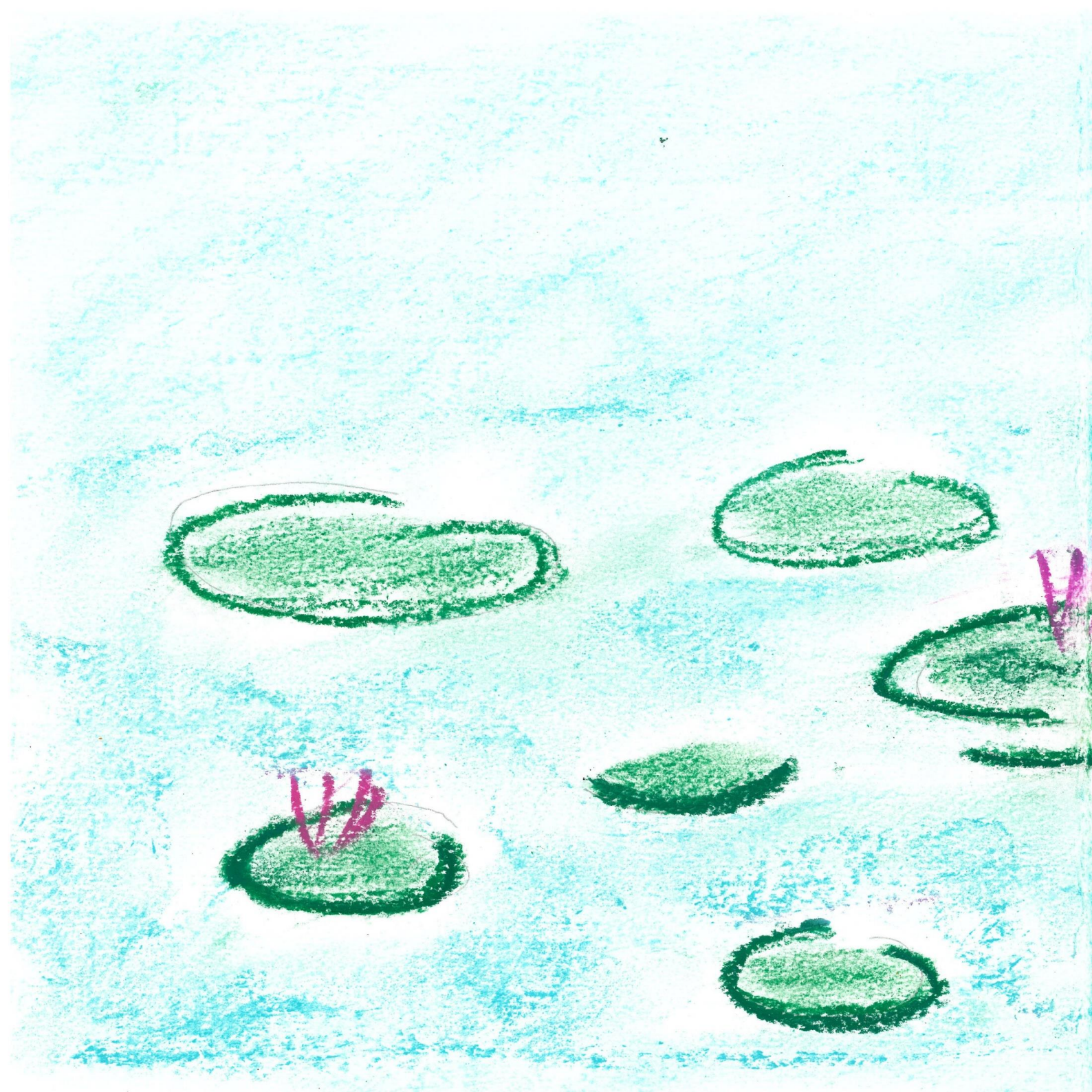


일몰이 아름답다고 하는 강화도에 있는  
적석사 낙조대

30년 넘게 운전한 베테랑 남편도  
힘겹게 등반하듯 도착한 곳이다.  
정상에서 바라보니 가슴이 활짝  
트이게 하는 멋진 풍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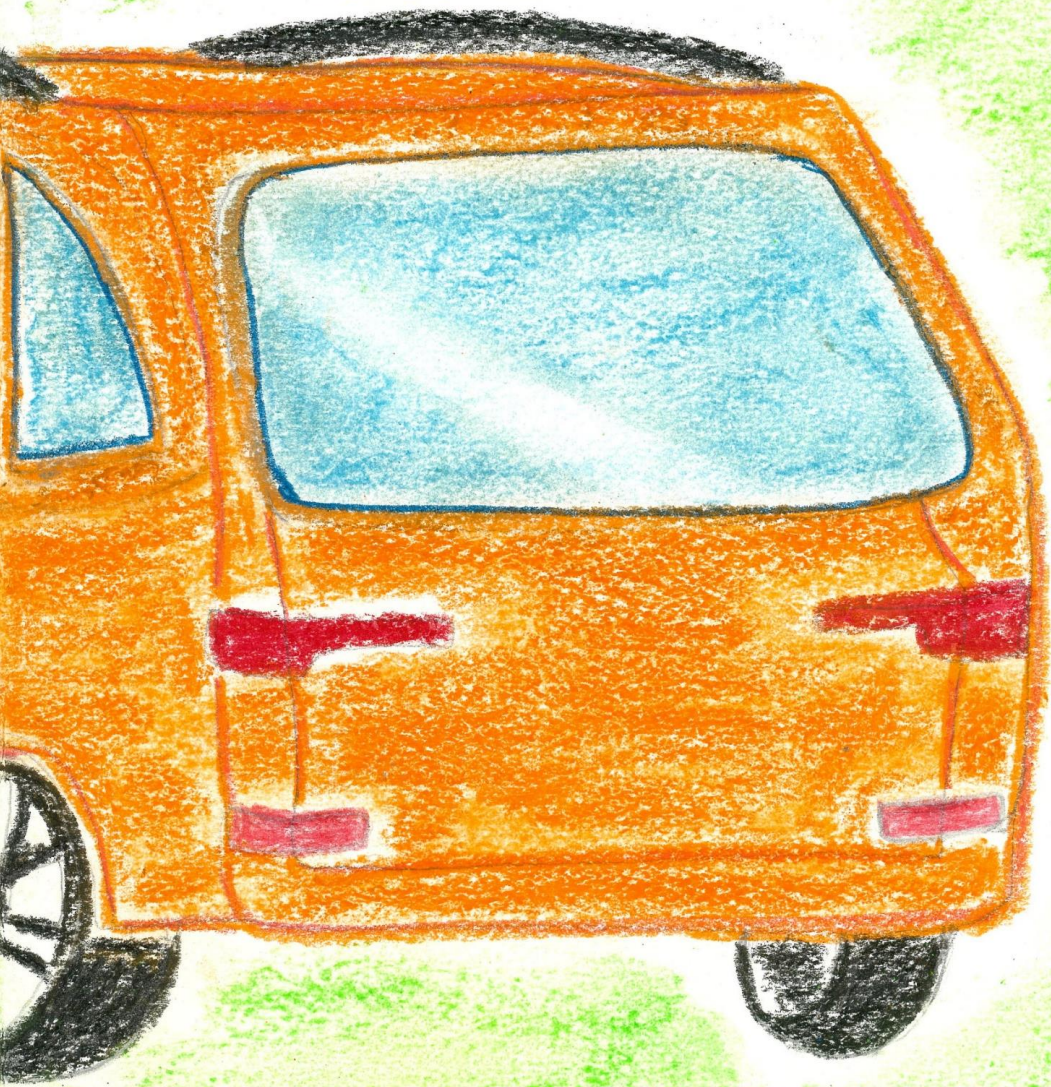
우린 욕심을 내서 교동까지 달려  
고구저수지에 도착했다.  
파란 하늘 아래 분홍빛 연꽃이 활짝 피어  
우리를 반겨주었다.



"이번엔 남쪽으로 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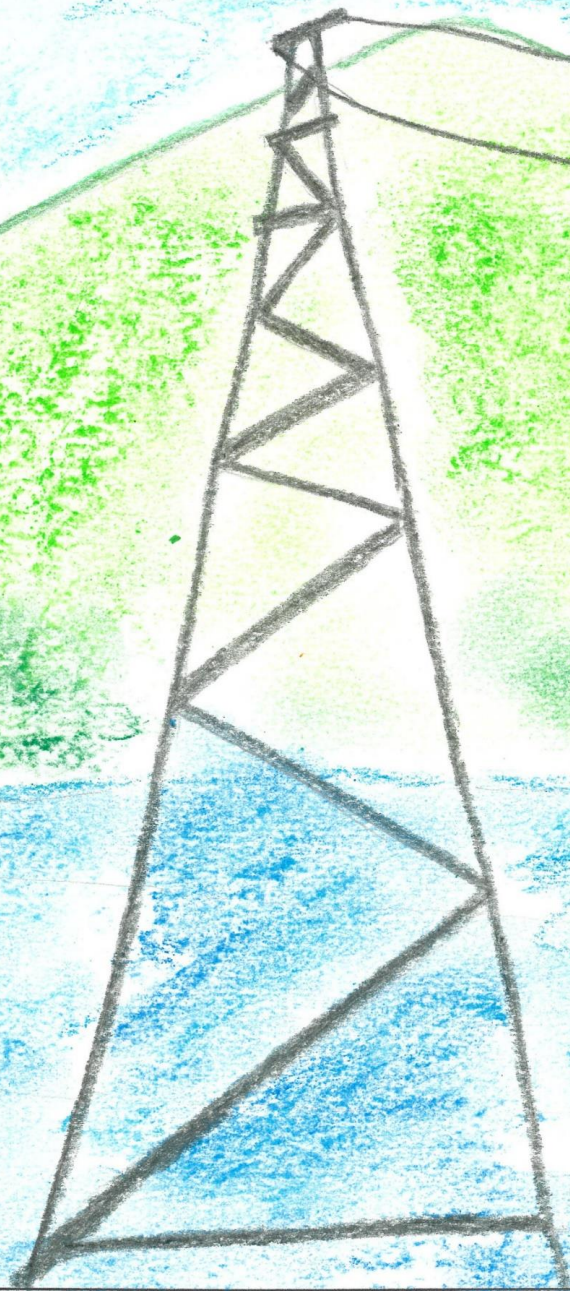
"응, 신나게 달려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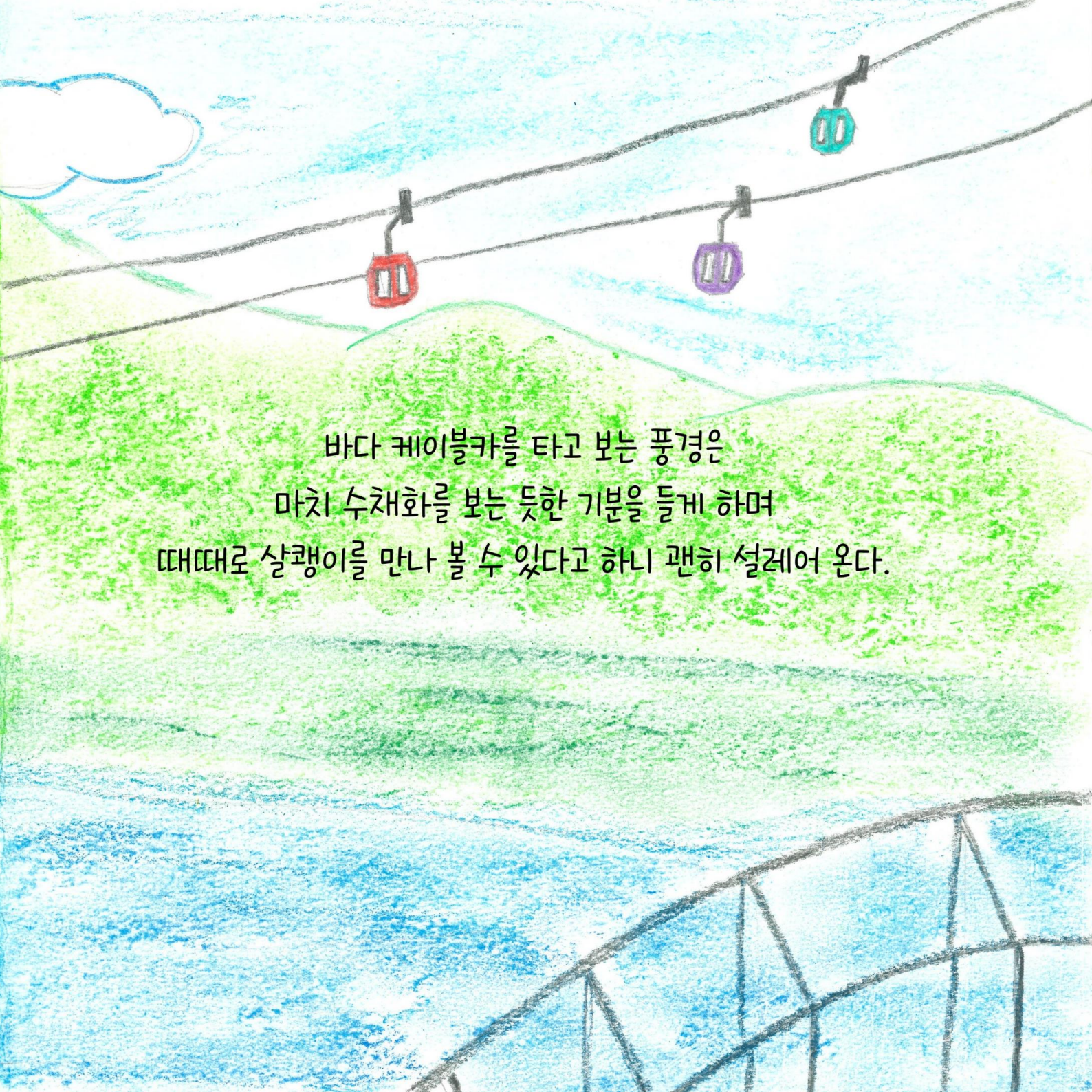




4  
N ↓

섬과 바다 그리고 강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경남 사천이다.





바다 케이블카를 타고 보는 풍경은  
마치 수채화를 보는 듯한 기분을 들게 하며  
때때로 살쾡이를 만나 볼 수 있다고 하니 괜히 설레어 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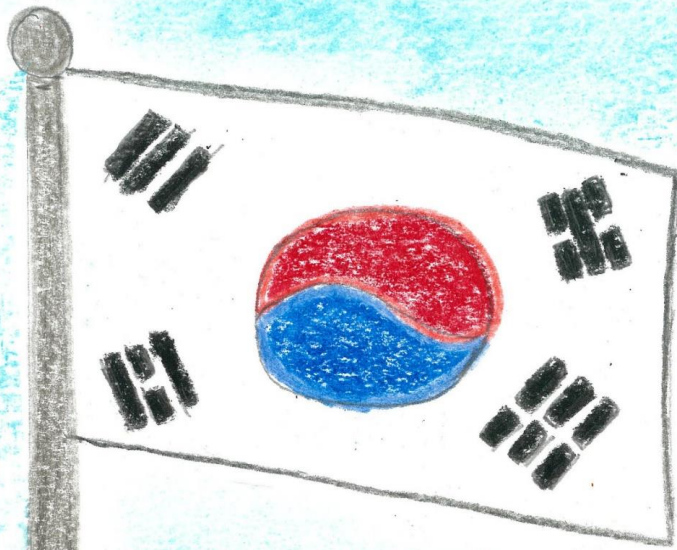
구도  
27  
호선시점  
오천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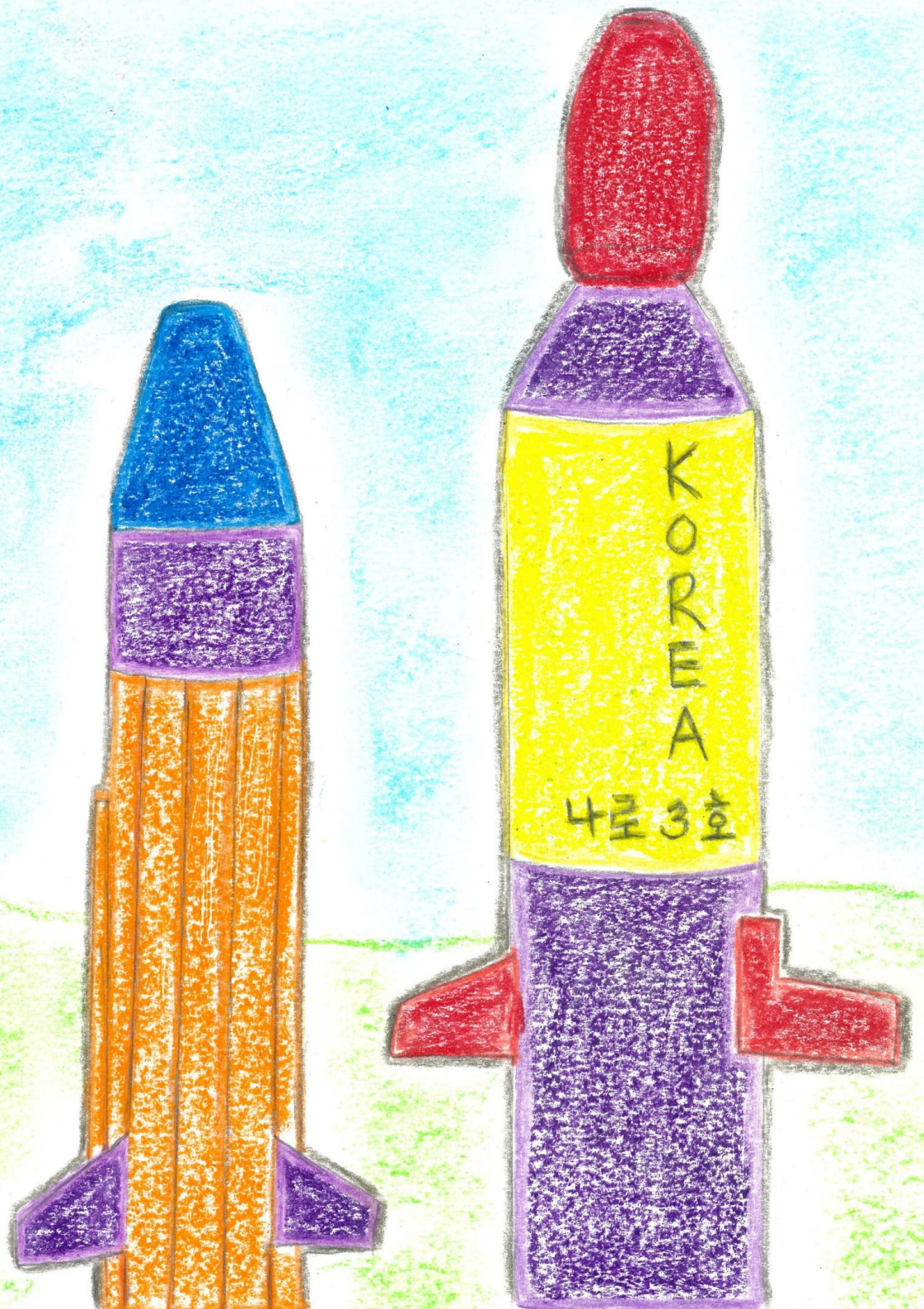
이곳은 남편의 고향 전남 고흥이다.

녹동에 들러 수산물 구경도 하고  
소록대교와 거금대교를 건너  
남해의 고래섬이라는 애칭을 가진 거금도에 도착했다.  
27번 국도 시발점이라는 돌비를 보니  
신기하고 신비롭다.





여긴 나로도 우주발사대  
우리나라 최초 인공위성 발사장인데  
우주항공 기술의 수준을 체감할 수 있는 장소이다.  
실물크기의 로켓을 실제로 보니  
웅장하고 뿌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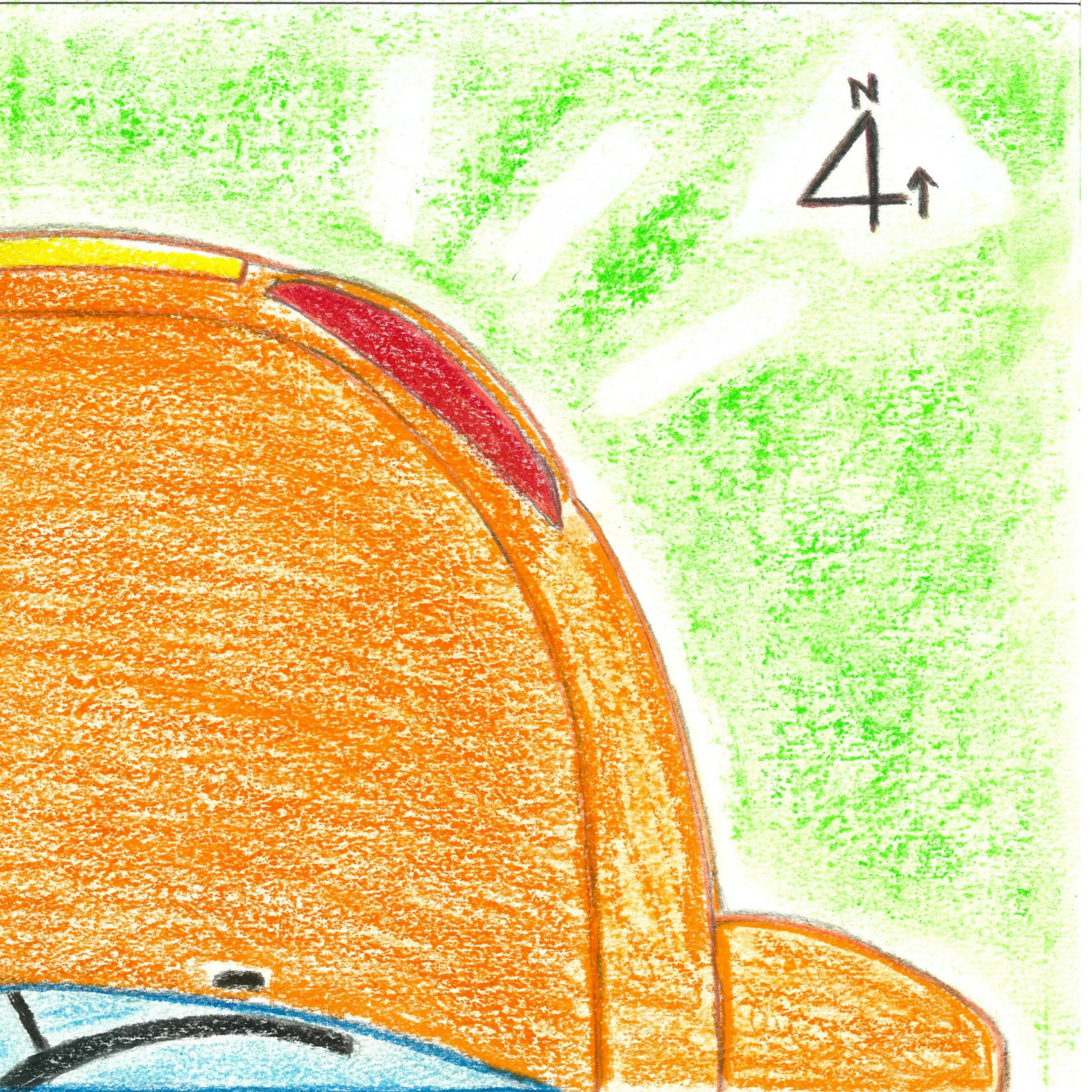
K  
O  
R  
E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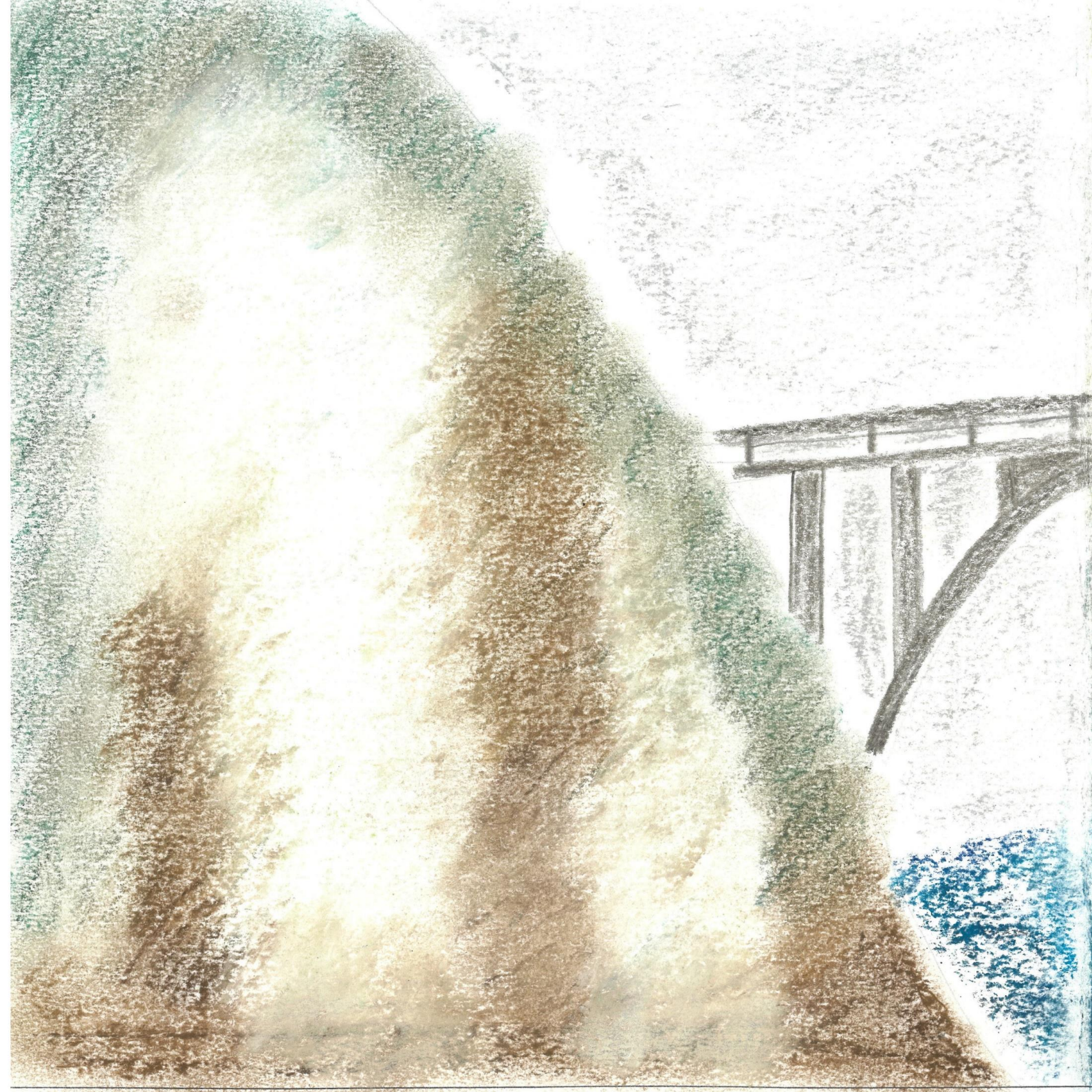
4호 3호

"북쪽은 어때?"

"끝까지 가보자구~ㅋㅋ"







목적지도 없이 철원을 드라이브하다  
우연히 만난 '승일교'  
남북이 합작으로 만든 다리라고 하니  
역사적 의미가 꽤나 깊은 거 같다.



연천당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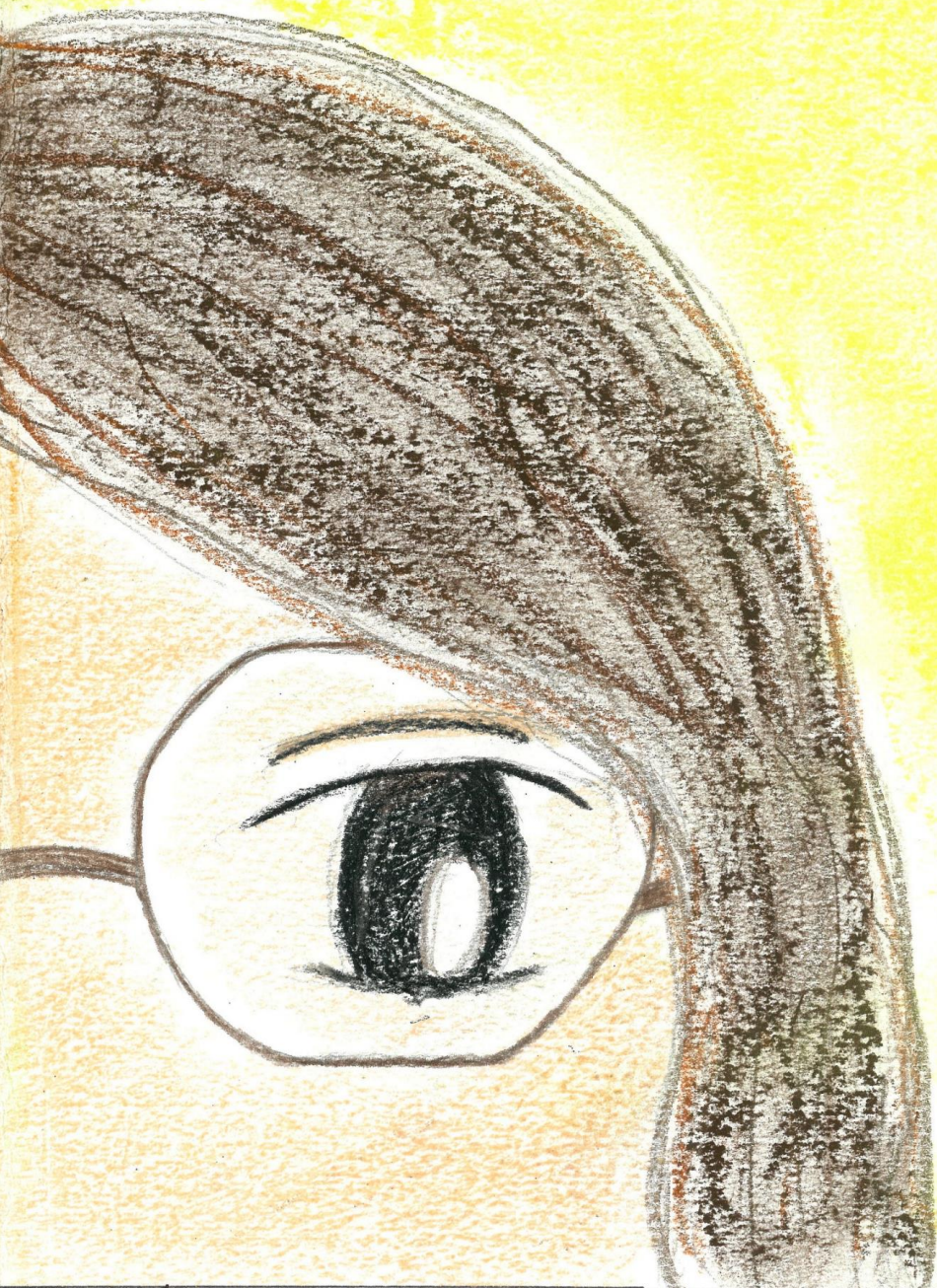
초록빛 잔디밭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는  
이곳은 연천에 있는 당포성이다.  
별보기 명소로 유명하다고 하니  
담엔 꼭 저녁에 다시 와서  
별구경하자고 남편과 약속했다.

?

?



우리 남편은 다음에 또 어디를 가자고 할까?







인천은 읽 권 쓰 한다 < <  
read walk write



안전은 **완전**합니다 <



전자책 읽기

